“안거 해제 후 만행은 동중선”

전국 총림 · 선원, 동안거 해제 법회 봉행

영축총림 통도사 해제 법회
성파 스님 법어, 정진 당부
총림·본사 등서 법회 열려

하성미 기자 · 유재상 충청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이동격 강원지사장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3월 3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동안거 해제법회에서 법어를 설하고 있다.

동안거 해제를 맞은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 해제 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3월 3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동안거 해제 법회 법어를 통해 수행의 본령을 설했다.

성파 스님은 “결제 기간 산문을 닫고 좌선에 전념하는 것은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밝히는 정중선(靜中禪)”이라며 “해제 후 행각과 만행은 움직임 가운데서도 한 생각을 놓치지 않는 동중선(動中禪)”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중선과 동중선은 둘이 아니다”라며 “앉아 있든 움직이든 수행자는 언제나 공부 중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3월 2일 대웅전에서 을사년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하고, 석 달간의 치열한 정진을 마친 대중 스님들을 격려했다.

이날 법회에서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염불과 화두가 하나로 만나는 수행의 원리를 강조하며 “목에 피가 나도록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러면 화두가 제자리에 철커덕 장착된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물건’이 확실해져야 하며,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그 자리를 볼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설했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3월 3일 대웅전에서 을사년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하고 정진을 회향했다.

방장 현묵 스님은 해제 법어를 통해 수행자의 자세와 본참공안 참구의 중요성을 설했다. 스님은 “그동안 정진 대중 스님들은 자신의 정진력에 의해서 결제에 들어서서 구순안거에 정진을 힘차게 해왔고 오늘 해제를 맞이하게 됐다”고 그간의 정진을 치하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3월 2일 보제루에서 을사년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방장 정여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동안거에 동참한 사부대중의 정진을 격려하며 수행의 본질을 짚었다. 정여 스님은 “맑고 깨끗한 세계와 더러운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잘 새겨보면 정토와 예토가 둘이 아니다”라며 “본래 내 마음에서 일어난 업의 작용일 뿐”이라고 설했다. 이어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경계는 자신의 한 마음에서 분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스스로 만든 경계에 속거나 이끌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고종 유일 총림인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승범 스님)**은 3월 3일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방장 지암 스님은 “정진하고 또 정진하되, 마음 바탕이 밝고 고요하게 하라”며 “불조의 뜻을 깊이 믿어 분명한 판단에 이르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3월 3일 적광전에서 을사년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해제 법문은 탄허 대종사가 1982년 미국 홍법원 개원 법회에서 설한 법문으로 대신했다.

정념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 산문을 나서는 걸음걸음이 보보시도량(步步是道場)이요, 보보등고(步步登高)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광사, 보성 대선사 7주기 추모다례재

3월 2일 대웅전 등서 봉행



목우가풍(牧牛家風)으로 한국 불교의 수행 가풍을 이끌었던 조계총림 전 방장 범일당 보성 대선사의 7주기 추모다례제가 봉행됐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3월 2일 경내 대웅전과 부도전에서 방장 현묵 스님, 주지 무자 스님, 영조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 스님을 추모하는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무자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 방장이신 보성 큰스님의 7주기를 맞아 원근에서 오신 말사 주지 스님들과 신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내리는 촉촉한 봄비가 마치 큰 스님께서 내리시는 법문과도 같고, 우리의 번뇌를 식히는 감로의 법비와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통해 스님께서 남기신 법문과 수행의 가르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보성 스님은 1928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1945년 해인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0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한 뒤 전국 제방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하며 선 수행에 매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지리산 화엄문도 합동추모재

3월 4일 각황전서 봉행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3월 4일 경내 각황전에서 ‘불기 2570년 병오년 지리산 화엄문도 합동추모재’를 봉행했다.〈사진〉

화엄사는 최근 입적한 문도 스님들을 함께 모신 합동부도탑을 조성한 뒤 매년 합동추모재를 통해 선대 스님들의 수행 정신과 가르침을 기리고 문도 간 화합을 다지고 있다. 이날 추모재 역시 화엄사의 발전과 문중의 가풍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지 우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엄문도는 선대 대덕 스님들의 수행과 원력이 모여 오늘의 가풍을 이루었다”며 “특히 어른 스님들께서 남기신 화합과 수행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도 대중이 함께 전법과 포교의 길을 이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 주지 덕문 스님의 원력으로 화엄사 다비장이 원만히 조성되면서 출가에서 열반까지 수행자의 삶을 함께하는 수행 기반이 더욱 갖춰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문도 대중이 서로 화합하며 수행과 포교에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픔도 수행 승화…대웅전 복원 불사 추진”

지역 불교人 김제 망해사 주지 우림 스님

주지 취임 후 누전으로 소실
“안전 강화해 새롭게 세울 것”
둘레길, 템플스테이관 조성도


김제 망해사 주지 우림 스님.

김제 망해사는 서해를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하다. 하지만 최근 망해사는 뜻하지 않는 시련을 겪고 있다. 최근 불의의 전기누전 사고로 발생한 화재로 대웅전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당시 망해사는 국가자연유산 명승 지정을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의 기대가 모아지던 시점이었다. 갑작스러운 재난은 도량과 불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망해사 주지 우림 스님은 “주지 소임을 맡은 직후 대웅전이 소실되는 상황을 맞았다”라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명승 지정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책임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라며 “밤새 자책과 기도로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님은 위기를 수행의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우림 스님은 “불이 법당을 태웠지만 신심까지 태울 수는 없다”며 “이 또한 무상함을 일깨우는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또 “형상은 사라졌지만 망해사의 정신은 남아 있다”라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굳건한 수행 도량으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우림 스님은 대웅전 복원불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림 스님은 “대웅전 복원은 단순한 건물 재건이 아니다. 망해사의 역사와 불자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 양식을 살리면서도 안전을 강화해 후대에 물려줄 법당을 세우겠다”라며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숙원사업인 공양간과 템플스테이관 마련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림 스님은 “공양간은 대중이 함께 수행의 인연을 나누는 공간”이라며 “불자와 지역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템플스테이관을 마련해 머무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며 “새만금 시대에 걸맞은 체류형 신행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둘레길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우림 스님은 “망해사의 자연환경은 그 자체로 수행의 교과서”라며 “바다와 숲을 잇는 둘레길을 조성해 걷는 수행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승의 가치를 살리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누구나 쉬어 가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1차 교구종회 개최

2월 26일 처영기념관서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는 2월 26일 처영기념관에서 ‘불기 2570(2026)년 제1차 교구종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교구종회는 의장 화평 스님을 비롯해 재적 의원 76명 중 49명이 참석했다.

안건으로는 2025년 교구 회계 결산 보고, 제17교구 선거관리위원 선출, 2026년 연등축제 관련 보고 및 논의 등이 상정됐다.

교구종회의장 화평 스님은 개회사에서 “교구 일정상 필요한 회의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교구 수행과 포교 발전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회는 불기 2569(2025)년 교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원만히 승인했다. 제17교구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교구장 스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교구장 화평 스님이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연등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유됐다. 봉축기간은 4월 25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까지 30일간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전북불교회관 등을 중심으로 연등축제 전담팀이 구성되어 업무 분장을 마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달집 태우며 한 해 액운 쫓고 행복 기원

전국 주요 사찰들 정월대보름 행사 열어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달집에 점화를 하고 있다.

병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국 주요 사찰에서 액운을 쫓고 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3월 3일 경내 범종루 마당과 일주문 주차장 일대에서 ‘달집태우기’ 행사를 봉행했다.

행사는 저녁 예불을 시작으로 달집 이운, 신중작법, 풍물 공연, 붓글씨 시연 퍼포먼스(박정민 국가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주지 호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올린 소원지들이 저 달과 불길을 통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며, 남양주시와 전 세계에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세종 영평사(주지 환성 스님)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와 낙화축제가 잇달아 열렸다.

2월 28일 영평사 경내에서 진행된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주지 환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진리처럼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월 1일에는 **세종불교낙화법보존위원회(회장 원행 스님)**가 주최한 낙화축제가 열렸다. 이날 축제는 관람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낙화의 장엄함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자 500명을 모집해 진행됐다.

세종불교낙화법보존위원회장 원행 스님은 “밤하늘에 떨어지는 불꽃이 사바세계의 모든 번뇌를 태우고 대중의 마음속에 희망의 빛으로 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천안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는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경내 연화지에서 방생법회를 열고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발원했다.

대원 스님은 법문에서 “비록 몇 마리의 미꾸라지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그 마음이 큰 복이 된다. 오늘의 방생 공덕이 모두에게 좋은 인연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 도광사(주지 탄문 스님)는 3월 1일 사찰 앞마당에서 ‘정월대보름 척사(윷놀이)대회’를 개최했다.

주지 탄문 스님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한마음으로 웃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절실하다고 느껴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논산 안심정사(주지 법안 스님)는 2월 28일 논산 황포대교 금강변에서 ‘정월대보름 용왕대재 및 방생 대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법안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 방생은 우리 마음속의 살생과 탐욕을 씻어내는 수행”이라며 “이 생명들이 자유를 찾듯 신도들의 가정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해 업장이 소멸하고 대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부안 내소사(주지 재안 스님)는 3월 2일 경내 할머니 당산나무와 일주문 앞 할아버지 당산나무에서 석포리 당산제를 열고 지역 공동체의 안녕을 발원했다.

주지 재안 스님은 “내소사 당산제는 불교와 민속신앙이 조화를 이루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과 부안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유재상 충청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 붓다, ‘자비의 짜장면’ 나눔 봉사

3월 4일 400인분 제공해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붓다(이사장 진성 스님, 마이산탑사 회주)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짜장면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3월 4일 전주 (사)붓다 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나눔은 한중우호동행협회(회장 주춘매)와 소문난 양사부(대표 양이철)가 뜻을 모아 성사됐다. 이들은 총 210만 원 상당의 짜장면 400인분을 후원하며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했다.

한중우호동행협회 회원들은 행사 전날 붓다복지관에 모여 짜장면에 들어갈 양파 등 채소를 직접 손질했다. 나눔 현장에는 마이산탑사 회주 진성 스님을 비롯해 사단법인 붓다 상임이사 현진 스님(천지사 주지), 주춘매 회장, 양이철 대표, 붓다봉사단원 등 30여 명이 동참해 배식 봉사를 펼쳤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민간의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이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